

동기부여와 동기조사

자유기고가 김춘경

02) 594-2264 abbia 1004@hanmail.net

동기(動機 : motive)는 일의 실마리(beginning)인데, 어떤 행위의 원인이 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윤리학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려는 마음의 움직임(incentive)으로, 문학에서는 작품을 만들게 된 직접적인 원인(原因:motif)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음악에서는 악곡의 단위가 되는 가장 짧은 악귀(樂句)나 한 악곡의 주제(主題)를 말한다. 동기부여(動機賦與 : motivation)는 개인이 어느 특정의 행동을 왜 택했는가 또 어떤 행위가 왜 지속하는 것일까를 생각할 경우의 기초가 되는 심리학상의 개념이다.

학습심리학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행동을 생기(生起)시켜서 일단 생기한 행동을 지속시키면서 그 행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심적과정의 총체(總體)로 간주되고 있다.

종래의 동기에 대해서의 취급은 학습심리학·임상(臨床)심리학·사회심리학·정신분석학 등의 영역(領域)에서의 해설하는 개념이 구구하였다. 그러나, 어떤 측면의 특징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이 개념에 대한 통일적인 견해가 미약한 상

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동기에 대한 연구는 크게 나누어 다음의 셋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첫째 기계적 접근방식이 있다. 이것은 심적 그리고 생리적 에너지의 운동에로의 변환(變換)이라고 하는 에너지 교환의 기계논리적 입장에서 생각하는 접근방식이다. 그 특징으로 동기를 행동에의 시발적(始發的) 기능이라 강조하는 견해이다.

개체(個體)의 신체적 또는 물리적 에너지의 방출이 어떻게 신체적 활동을 일으키게 되는지, 개체 내외의 환경으로부터의 자극이 어떠한 전체적 반응으로서 행동을 환기(喚起)하는가를 고찰하려고 하는 입장인 것이다. 여기에서 전체적 반응이란 것은 국부적인 반사반응(反射反應)을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반사의 경우는, 일정한 자극에 항상 자동적(自動的) 그리고 고정적(固定的)으로 반응이 생기므로 동기라고 하는 개념을 관련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목적론적 접근방식이다. 이 입장은 개발(開發)된 행동이 어떤 목표로 방향이 돌아갈 것인지, 그

측면을 지향적(指向的)으로 기능의 레벨을 클로우즈업(close-up)하는 견해이다.

예컨데, 칼슘이 부족한 유아(乳兒)가 모래나 화로의 재를 손으로 움켜 먹는다거나, 칼슘을 주지않고 사육한 닭이 사람의 단추나 안구(眼球)를 쪼으려 덤비는 예는 이 입장에서의 대표적인 사고(思考)방법이다. 특정한 이성예의 구애행동이나 지위나 명성을 찾는 노력 같은 것은 사회적인 학습에 따르는 중요한 동기적 행동의 현상(現象)인 것이다.

셋째 발생론적 접근방식을 들 수 있다. 이 입장은 왜 특정의 동기가 출현했는가에 초점(焦點)을 두고, 행동발현의 과정을 그 개체의 과거경험에서 설명하려고 한다. 예컨데, 불을 끄고 공포증상을 일으키는 것은 불에 대한 과거경험에서의 충격이나 공포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한다. 정신분석학과와 임상심리학이나 발달심리학의 입장에서는 사람에게는 흔히 있는 견해로 본다.

이것은 결국 행동의 강화(強化)적 기능을 강조하는 견해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심리학을 중심으로 한 사회과학적 입장에서 동기의 문제를 취급할 경우는 동기는 고정적 혹은 불변적이거나 획기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학습에 의해 획득하고 변용되어가는 이른바 획득성 동기(acquired motivation)를 상기한다. 이와 관련하여 동기론(動機論)은 철학용어로서 협의(狹義)로는 동기의 중심이 되는 목적관념(目的觀念)만 정당하면 실현의 수단과 결과는 묻지 않는 주관적 동기론이다.

그리고 광의(廣義)로는 목적관념이 중심이 되어있지만 이것이 실현되는 수단결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간단히 말해서 결과론(結果論)의 반대이다. 칸트(I.Kant : 1724-1804)는 모든 선(善) 가운데 선의(善意)만이 선이 될 수 있다는 선의 지상주의로서 동기설을 주장하였으며, 목적론의 윤리설은 결과론이라 하여 이와 대립시켰다.

소비자가 물건을 살 경우에 그 구매(購買)의 동기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동기(動機)조사(調査) : motivation research)라고 한다. 그것은 인간 행동의 심리적인 배경을 찾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심리적인 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심리와 행동과의 관련을 조사하고 연구 및 분석하는 것이다.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인 원인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 경과와 과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동기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욕구(欲求 : needs)와 같은 뜻이다. 그러나 동기조사라고 할 경우, 결핍(缺乏) 혹은 필요의 내적동인(內的動因)과, 자극으로서의 외부유인(誘因) 및 그것에 따르는 행동과의 관련을 문제로 삼는 것이다.

동기조사에는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조사방법이 있다.

첫째 개인면접법이다.

이것은 개인을 면접해서 동기를 찾는 방법이며, 이 방법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에게 자기의 깊은 층(層)을 털어놓기 쉽도록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견본을 제시해서 응답하기 쉽도록 한다

든가 하는 유도적인 방법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집단면접법이다.

몇사람이 집단으로 나누어 토의시켜 거기에서 개인의 동기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집단면접법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면접보다 각인(各人)의 표현이 용이하다. 그러나 활발하고 자유분방한 분위기속에서 토의할 수 있는 사회나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셋째 언어연상(言語聯想) 테스트이다.

언어의 연상에서 깊은 층의 심리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언어는 생각이나 느낌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수단과 체제이다.

넷째 문장완성(文章完成) 테스트이다.

문장에 빠져있는 부분을 보완(補充)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도 자유롭게 보완시키는 방법과 미리 준비한 회답중에서 선택시키는 방법이 있다. 문장이란 어떤 생각이나 즐거리를 세워 글자로서 적어 나타낸 것이다.

다섯째 그림 연상테스트이다.

언어연상 테스트의 언어 대신에 그림을 사용해서 깊이 박혀있는 심리층을 끌어내는 방법이다.

여섯째 약화(略畵)테스트이다.

섬세한 부분은 생략하고, 대충의 모양을 간단하게 그린 그림이다. 여기서 이것은 문장완성테스트의 문장대신에 약화(sketch)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불완전한 약화를 보여주고 부족한 점을 자연스럽게 채워넣어 보완시키는 방법이다. 예컨대, 약화로 된 그림의 일부분을 공백(空白)으로 해놓고, 거기에 자유로이 가입시키는 방법이다.

일곱째 주제(主題)연상테스트이다.

어느 장면을 설정하고, 그곳에서 먼저의 진전을 각인(各人)이 자유롭게 상상(想像)해서 진행시키는 방법이다. 어느것이든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동기조사는 대개 주관적인 것에 좌우되어 주관적인 것이 되기 쉽다. 또 각인각색(各人各色),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신제품의 개발(開發) 따위에는 동기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에서 근래 인기를 모으고 있는 신종 직업의 하나가 모티베이터(motivator)라고 한다. 의역하면 자극을 주어 유도해서 동기(動機)를 만들어주는 사람쯤 될 것이다. 카운슬러(counselor)는 상담자(相談者)나 조언자(助言者)에 불과하다. 모티베이터가 카운슬러나 학교선생과 다른점은 자신의 실제 체험을 통한 훈화(訓化)를 한다는 점이다. 즉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가르쳐서 감화시키는 것이다. 이를테면 무학자(無學者)가 어찌해서 오늘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으며, 에베레스트 정상을 어떻게 정복했다는 실화나 이야기로 공감을 자아내 감동을 주는 것이다.

동기(動機)는 음악용어로서 악곡구성의 최소단위인데, 리듬·선율·화성(和聲)에서 어떤 의미 내용을 가지는 음군(音群)이다. 일반적으로 주제는 몇 개의 동기로 형성된다. 보통 고전과 음악에서 동기는 2소절로 되고, 2동기가 모여 작은 악절을 구성한다. 그러나 낭만주의 음악 이후 이 구성원리가 무너져, 바그너의 시도동기(示導動機)와 같은 주제적 역할을 하는 등, 큰것으로부터 2마디 이하의 작은 것까지 출현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동기부여(動機賦與 : motivation)란 생활체(生活體)의 행동을 일으켜, 일정한 목표로 방향을 부여하고 통합하는 내적요인 또는 그 과정이다. 심리학의 구성개념으로 동기부여는 동인(動因)과 유인(誘因)의 2개의 측면이 있다. 동인은 공복(空腹)이 섭식을 촉진시키듯이 사람을 행동으로 선동하는 내적과정을 말하며, 유인이란 일명 목표라고도 불리며 행동을 유발시키는 내발자극(內發刺戟)이다. 보통 유인의 만족으로 동인은 저하한다. 또 동기는 동인과 거의 같은 뜻이나, 동기부여의 의식적인 면을 강조해서 특히 지칭한다.

동기부여의 종류로는 첫째로 호메오스타시스(homeostasis)성 동기부여를 말할 수 있다. 항상성 혹은 안정성인데 외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체내의 안정을 유지하는 경향이다. 이는 생활체의 생명유지에 관련된 내적 균형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생리적 동기부여를 말한다. 둘째로는 성(性)의 동기부여다. 성의 유발로 인한 동기부여를 말한다.

셋째는 정서적 동기부여인데, 이는 기쁨·놀라움·노여움·두려움 등의 감정에 의한 동기부여를

말한다. 넷째로는 내발적 동기부여이고, 이는 활동·호기심·놀이 등의 동기부여로서 그 자체가 목표가 된다. 다섯째로 집단에의 귀속·친화·달성 등의 동기부여로 이를 일명 사회적 동기부여라고 부른다.

또 동기조사(動機調査 : motivational research)는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근본적 동기, 의식의 심층에 자리잡은 숨은 동기, 잠재의식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구매동기조사라 하여 보통 시장조사의 한가지 방법으로 소비자가 구매행동에 옮기기까지의 사고나 태도를 분석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대표적인 것으로 심층면접법, 집단토의법, 투영기법이 있다. 투영기법에는 어귀연상법, 문장완성법, 회화회답법 따위가 있다.

행동의 도덕적 판단에 있어, 동기를 유일한 대상으로 삼는다. 즉 모든 행위의 선악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그 동기로서 결정된다고 하는 윤리학설이 이른바 동기설(動機說)이다. 이는 결과설(結果說)의 대(對)인데, 무조건적으로 선(善)이라는 것은 “좋은 의지” 뿐이라고 주장한 칸트가 그 대표적 인물이다.

